

이사야 62 장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1.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62 장 기도운동

2020 년 1 월 첫째주 기도 편지

기도의 동반자들이여,

2020 년이 되면 우리는 새해를 다시 한 번 기도로써 시작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본부에서 1 월은 기도와 금식으로 바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를 위하여 요청합니다.

응답받는 사고방식

개인적인 기도 응답의 열쇠 중 하나는 기도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 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평범함을 넘어선 축복을 받는 사람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놓칠 뻔 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8 장에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날이 뜨거울 때에' 일어난 날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가장자리에서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평선에서 오고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부유하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그의 종 중 한 사람을 보내어 방문객들을 만나러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쉼을 제공하라는 지시도 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기회를 포착하고 스스로없이 최대한의 의도와 노력을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기의 '권위'와 '그날의 더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러 나가지 않았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축복의 주님을 온전하게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와 사라는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첫 반응은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함을 뛰어넘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메시지를 전한 후에 떠났습니다(창 18:16).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다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대한 최고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임신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반응은 세 명의 방문객에게 그 놀라운 새 소식에 대해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그들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내와 함께 기뻐하며 새로운 아기방과 침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의사에게 고령임신의 위험성 등에 관해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기서 쉽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라고 창세기 18:16 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아버지는 자신의 응답이 달성된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죄와 악이 하늘을 괴롭히는 도시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계시와 통찰력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소돔 쪽으로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22 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아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이 도시의 심판이 언젠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가 많고 불경건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자신이 뿌린 것은 자신이 거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생각은 우리 입술에 너무 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죄 많은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위해 앞자리를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요나 4 : 5).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성경에서 가장 대담한 중보기도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6 번의 '협상 단계'를 통해 소돔에 대한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도시에 의인이 50 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인간들 때문에 의인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오십 명이라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45 명은 어떨습니까? 5 명으로 줄어 40 명은요?” “30?” “20?” “10 명은 어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10 명이나 있더라도 도시를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창 18:33).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셨습니다. 대화는 훨씬 일찍 끝났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태도와 접근 방식으로 인해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두 도시 전체를 거의 다 구할 수도 있었던 대화였습니다.

다음은 이 이야기에 대한 몇 가지 교훈입니다.

1) 아브라함처럼, 나이, 위치 또는 어려운 상황 (뜨거운 날씨)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청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더 많은 하나님을 위한 영적 굶주림과 갈증의 태도를 확립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갈증을 자체평가하여 일 년을 시작하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잃어버렸다면, 그분에 대한 첫사랑과 소망을 되살리도록 도와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 4).

2) 성취한 축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항상 더 계십시오.

주님의 자원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땅을 정복한 후에도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지경을 더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 12:20). 승리를 거둔 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요아스 왕은 소심하여 땅을 더 자주 공격하지 않아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기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하 13:19).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너무 일찍 만족하지 마십시오.

3) 도시나 국가에 관한 일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라가 심판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50 명의 의인이 있는지, 자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 15- 16 은 중보기도가 있다면 나라를 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주위에 기도 그룹이 없다면, 올해 몇 주 동안 한 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기도용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4) 전보다 더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 급히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존재하는 정치적 혼란과 결단력의 시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다가오는 세 번째 선거조차도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할까 봐 곤경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 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의와 공의로 땅을 다스릴 힘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5) 정기기도 시간에 ICEJ 를 위한 기도를 포함 시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역의 손을 들기 위해 여러분과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대사관 안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크신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Dr. Jürgen Bühler

유어건 부홀러 박사

국제 기독 예루살렘 대사관 총재

기도 제목

2020년 1월 첫째주 기도 편지

*이사야 62 전세계 기도운동에서 기도와 금식은 2020년 1월 8일 수요일마다 있을
것입니다. 동참하여 주십시오.*

1.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의 미해결 선거 난국

이스라엘 국가는 이제 3차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 투표는 3월 2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조기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난국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겐 정말 긴박한 시간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투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적인 피해와 이스라엘의 적들이 국가가 지도자가 없고 공격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선거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나타나 국가를 미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현 국무총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기소하고 불명예를 당하고 있으며 권력에서 그를 쫓아내려는 시도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의 정치 위기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위해 주님께 향하여 지혜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 국가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치적 공백이 계속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해를 입히려는 적들의 모든 계획과 시도에 대항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편 121: 4- 8)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히브리서 8:10)

2. 국가를 위한 기도

예루살렘, 골란, 정착지에 대한 더 유리한 결정

각국의 나라들은 최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그들의 대사관을 그곳으로 옮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시대에 예루살렘과 그 예언적 선포에 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공동체 (“정착”)를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보는 데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입장에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스가랴 2: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요한 계시록 3:12)

3. ICEJ 를 위한 기도

목회자 회의, ENVISION



2020년 1월 말, 국제 기독교 대사관 예루살렘은 전 세계 목사와 사역 지도자들을 위한 연례 ENVISION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을 위해 계획과 결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행사에 참여할 합당한 목회자를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 부음이 모든 연사들에게 이루어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시의 적절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하박국 2: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디모데후서 4:1- 5)

기도로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